

중소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의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재형* · 이정훈** · 남동균***

<목 차>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 IV. 연구 방법
- V. 연구결과
- VI.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우위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어떠한 무형자원이 중요할까? 특히, 시장 환경 변화가 크고, 위기·재난 상황일 경우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시장 환경 변화가 클 때, 중소기업 중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우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량으로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조직회복탄력성을 제시하였고, 특히, 최근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는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갖는지 실증하였다. 또한,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조직회복탄력성의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술경영학협동과정 경영학박사 (jhlee.passion@gmail.com)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jhoonlee@yonsei.ac.kr)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dksouth95@gmail.com)

어떤 하위요소에 따라 조절효과가 달라지는지 실증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은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조직회복탄력성도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소인 위기준비역량, 위기대응역량, 변화주도역량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고, 위기준비역량과 변화주도역량은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그리고,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역량의 조절효과,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역량의 조절효과는 플랫폼기업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는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과에 직접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성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으며,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 간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조직회복탄력성, 기업성과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Absorptive Capacity on Corporate Performance between Platform Companies and General Companies in SMEs: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Lee, Jae-Hyung · Lee, Jung-Hoon · Nam, Dongkyun

Abstract : This study comprises critical questions of “What kinds of intangible resources are significant to create and reinforce competitive advantages for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national economy? What kinds of capacities do SMEs need in consideration with the large changes in market environment and during crisis? With large changes to market environment, would different capacities affect performance of platform and general SMEs?”

To examine these questions, I have provide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bsorptive Capacity, and Organizational Resilience as key capacities that influence the competitive advantage and performance of SMEs. In particular, I have substantiated the control effect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a rising key capacity for enterprises in recent times) on Corporate Performance. Moreover, I have analyzed the control effect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on Corporate Performance by comparing platform and general companies, and also substantiated how control effects may vary depending on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Absorptive Capacity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influence Corporate Performance. Organizational Resilience also demonstrate a positive influence on Corporate Performance. Notably, sub-factors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risk preparation capacity, risk response capacity, and change initiative capacity) significantly control cor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Risk preparation capacity and change initiative capacity significantly control correlation between Absorptive Capacity and Corporate Performance.

Additionally, the control effect of risk preparation capacity significantly control correlation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Also, the control effect of risk response capacity correlations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Corporate Performance demonstrated themselves significantly only in platform enterprises. The study's results indicate that Organizational Resilience not only directly influence Corporate Performance, but also strengthens Corporate Performance via mutual interaction with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Absorptive Capacity, although the control effect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may vary between platform enterprises and general enterprises. I expect such results to provide practical value to the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Key Words :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bsorptive Capacity, Organizational Resilience, Corporate Performance

I. 서론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중소기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99.9%, 근로자의 83.1%, 매출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금융자본과 인적자원의 한계, 기술, 그리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Maelah, Lami, & Ghas, 2021), 기업 규모가 작으므로 예상치 못한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Spithoven, Vanhaverbeke, & Roijakkers, 2013), 이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유자원이 별로 없으므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Aldrich & Auster, 1986). 이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무형 자원의 활용이 중요하며, 외부 자원과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경쟁우위 달성은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의 확보와 효과적인 활용에 달려 있다는 자원기반 관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자원의 개발과 축적은 기업성과에 많은 기여를 하며(Wiklund & Shepherd, 2003),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Barney, 1991).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원이자 역량으로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조직회복탄력성을 제시하였고, 이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일관된 실증분석의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외부 환경 조절 및 매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회복탄력성이 조절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과 상호작용하여 기업성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학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그간 회복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인에 초점을 두었고, 조직 관점에서는 조직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 분석, 선행요인 분석, 조직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특징 등에 대한 연구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직회복탄력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연구하여 이론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더 클 것으로 가정하고, 두 집단 간 조직회복탄력성이 다를 뿐 아니라 플랫폼기업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실증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2.1. 기업가지향성

기업가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은 조직 수준의 기업가정신을 말하며(Covin & Lumpkin, 2011; Wales et al., 2011), 기업가정신 및 경영전략 연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Wang, 2008; Slevin & Terjesen, 2011), 전반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eh et al., 2007; Rauch et al., 2009). 기업가지향성은 빠른 기술의 발전 및 짧아지는 제품수명주기,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한경쟁의 최근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혁신성과를 창출하여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함으로써(이정민·김병근, 2018),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조세근·손종서·이우진, 2015). 특히, 벤처의 특성을 갖는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기업가지향성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조직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더 나은 기업성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Wiklund, 1999),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Wang, 2008).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두 변수 사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기업가지향성의 직접적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대부분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장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Covin & Slevin, 1989; Zahra & Covin, 1995; Lumpkin & Dess, 1996; Wiklund, 1999; Keh et al., 2007; Richard et al., 2009; Su et al., 201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Matsuno et al., 2002; Ireland et al., 2003), 두 변수의 관련성에 의문을 나타내거나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다(Matsuno et al., 2002; Stam & Elfring, 2008; Frank et al., 2010; Kraus et al., 2012). 국내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우형록·권정언, 2013; 최석봉·이도형, 2013), 그 이유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한국 중소기업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우형록·권정언, 2013). 또한,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가 역U자형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Tang et al., 2008; Su et al., 2011; Tang & Tang, 2012; Chen & Hsu, 2013). 이처럼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Lumpkin & Dess(1996)는 변수 간 관계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효과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황 조건들을 함께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tam & Elfring, 2008; De Clercq et al., 2010). 또한,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직적·환경적 맥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와 매개변수를 설정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Lumpkin & Dess, 1996; Wiklund & Shepherd, 2005; Green et al., 2008). 기업가지향성의 직접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조건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특성 요인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재무적 자원(Wiklund & Shepherd, 2005) 같은 유형자원과 리더십 같은 무형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Engelen et al., 2014). 또한, 자원 및 역량 활용성(Garcia-Villaverde et al., 2013; Wiklund & Shepherd, 2005), 산업 특성(Covin & Covin, 1990; Dess et al., 1997; Lumpkin & Dess, 2001)과 같은 내부 및 외부 상황 요인이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iascia et al., 2014). Lee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이 경영성과와 정(+)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자원기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국내 벤처기업 13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는 정(+)의 관계가 있고, 대학 및 벤처캐피탈의 제휴가 기업가지향성과 상호작용하여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klund & Shepherd(2003)는 기업가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뿐 아니라 기업가지향성과 지식자원의 상호효과를 동시에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조직회복탄력성을 살펴보고,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2. 흡수역량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은 기업의 환경 적응에 필요한 학습역량을 설명하기 위해 Cohen & Levinthal(1990)이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identify)하고 체화(assimilate)하여 상업화(commercial ends)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흡수역량은 기업이 혁신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전략경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Lane & Lubatkin, 1998; Zahra & George, 2002). 특히, 자본 및 기술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흡수역량이 중요한데(Senivongse et al., 2020),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은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무리한 투자

보다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기업 또는 기관 등과의 협력과 제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습득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석민, 2021). 또한, 혁신에 대한 기업 규모별 비교 연구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흡수역량의 관점에서 더 유리하며(Spithoven et al., 2013),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의 흡수역량이 협력역량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흡수역량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협력역량의 증진을 통한 혁신성과를 간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김병근·옥주영, 2017).

흡수역량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부에서 획득한 정보를 적용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Zahra & George, 2002; Lane et al., 2006) 기업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Tsai, 2001)으로 연구되어 왔다. 흡수역량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Cohen & Levinthal(1990)은 흡수역량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쟁 기업의 기술과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Tsai(2009)는 이로 인해 더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owery, Oxley, & Silverman(1996)은 흡수역량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성과도 높다는 것을 실증하였고, 흡수역량이 장기적인 기업 혁신 활동에 대한 투자와 지식 축적의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George, Zahra, Wheatley, & Khan(2001)은 R&D 투자액 및 특허등록수로 측정하여 흡수역량이 신제품 출시 건수와 총자본회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여 재무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Zahra, Ireland, & Hitt, 2000)와 수익성, 시장 점유율, 품질 등에 관한 성과분석 연구(Verona, 1999)도 이루어졌다. Lane, Salk, & Lyles(2001)는 해외 합작투자기업과 모기업 간의 지식 이전에 관한 연구에서 모기업으로부터 이전되어 학습된 지식과 외부로부터의 흡수한 지식의 활용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Nieto & Quevedo(2005)는 흡수역량이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 증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Lane, Koka, & Pathak(2006)은 흡수역량이 제품과 서비스, 특허 등 사업성과와 함께 일반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 지식, 조직적 지식 등 지식성고가 창출되면서 혁신성과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Zahra & Hayton(2008)은 국제적 조인트벤처 217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수역량이 수익성, 매출액과 같은 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D역량과 혁신역량을 갖추어 해외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철모·최정일(2008)은 흡수역량은 내부적인 요인인 기업의 자원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자원기반이론과 관계가 있으며, 흡수역량은 경영자의 태도, 활용 경험 및 기업 보유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흡수역량의 활성화는 조직 경쟁력 확보에 대한 원천이 되고(Lane,

Koka, & Pathak, 2006), 흡수역량이 높으면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성과를 향상할 수 있다(Teece et al., 1997; Teece, 2007). 특히, 시장 환경 변화가 큰 경우 흡수역량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ichtenthaler, 2009).

이같이 흡수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다른 결과를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다. Wales et al.(2013b)는 스웨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수역량과 재무성과의 관계가 역U자를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이경미·이장우(2017)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흡수역량의 증가에 따라 혁신성고가 높아지지만, 흡수역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U자 관계를 실증하였다. 또한, 흡수역량과 기업성과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 외에 다양한 맥락적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Tsai(2001)은 워싱턴에 위치한 28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위치와 지식 흡수능력의 상호작용이 사업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Zahra & Hayton(2008)은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여러 국제적인 벤처 활동이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한다고 주장하였다. Flatten et al.(2011)은 독일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수역량은 기업성과와 전략적 제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흡수역량이 전략적 제휴를 매개로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Maldonado et al.(2019)는 흡수역량이 혁신 및 재무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사전 경험 및 지식, 문화 및 산업적 맥락, 데이터 종류가 흡수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흡수역량이 대부분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었다. 또한, 흡수역량은 수익성, 매출액과 같은 재무적 성과와 더불어 기술성과, 신제품성과, 혁신성과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실증되고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은 주로 흡수역량을 독립변수로, 기업성과를 종속변수로 설명하거나, 흡수역량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조절변수를 설정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흡수역량과 기업성과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조직회복탄력성을 살펴보고,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조직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2.3. 조직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구부러지고 압축 또는 늘려진 이후 원래 형태나 위치로 돌아

가려는 능력 또는 힘을 뜻하는 라틴어 ‘Resiliere’에서 유래되었다. 회복탄력성은 아동 심리학(Werner & Smith, 1977)과 생태학(Holling, 1973)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개인의 회복탄력성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Lengnick-Hall & Beck, 2011). 그러나, 최근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들이 조직이 재난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더 번성하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해 초점을 두기 시작했고(Corey & Deitch, 2011), 조직의 변화, 대응력, 혁신, 유연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직회복탄력성(Organizational Resilienc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Denhardt & Denhardt 2010), 개인 회복탄력성을 넘어 엔지니어링, 조직연구, 경영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조직은 역경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번영해나가는 경우가 있으며(Sutcliffe & Vogus, 2003), 조직이 미래의 도전에 더욱 유연하고, 더 잘 적응하도록 하며, 변화에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데(Denhardt & Denhardt, 2010),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바로 조직회복탄력성이다(Gittell et al., 2006). 조직회복탄력성은 역경 상황에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능력(Sutcliffe & Vogus, 2003)과 단순한 회복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확장된 능력을 포함하며(Lengnick-Hall & Beck, 2011), 조직이 증가하는 변화와 갑작스러운 과외에 대응하고 적응하며, 준비와 예측하는 능력으로 조직을 생존시키고 번영시키는 데 필요하다(Chen, 2016). 오늘날 기업들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큰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금융위기, 자연재해, 테러공격, 전염병의 확산 등과 같은 위협은 조직 운영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조직에 도전이 될 수 있다(Bhamra et al., 2011).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변화가 많은 환경 상황은 조직에 빠른 적응성, 유연성, 창의성을 요구한다(Kantru & Iseri-Say, 2012). 특히,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빠르게 회복하고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업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변화에 대응하였으며, 어떤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에 일어난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 항공업계는 고객의 감소로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입었고, 이 때문에 주요 항공사들은 평균 16%의 인력을 감원했다(Gittell et al., 2006).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항공사는 위기로부터 잘 회복하였고, 일부는 그렇지 못해 파산에 직면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약 1800개 미국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높은 성과를 거둔 기업 중 약 70%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침체기 때 외부 충격에 의한 즉각적인 영향이 적었고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BCG, 202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회복탄력성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스트레스가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Horne & Orr, 1998; Mallak, 1998a; Sutcliffe & Vogus, 2003; Gittell et al., 2006). 또 다른 관점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이를 기회로 새로운 역량 개발 및 기회를 창출하는 확장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Lengnick-Hall & Beck, 2003). Hamel & Valikangas(2003)는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일회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예측하고 적응해 가는 것을 조직회복탄력성으로 보았다.

조직회복탄력성에 대한 대다수 선행연구는 이론 정립, 모형 개발, 척도 개발 등에 관한 것이며, 어떤 요인들이 조직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지를 정의하려는 노력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회복탄력성이 조직의 직·간접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2.4. 플랫폼기업

플랫폼(Platform)은 사전적으로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의미한다. 플랫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애플, 구글, 에어비앤비와 같이 기존 비즈니스 논리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가 탄생하였다(Rogers, 2016). 플랫폼 비즈니스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Hagi & Wright, 2015). 플랫폼 비즈니스는 서로 다른 다수의 집단이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며, 이때 창출되는 가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Rysman, 2009). 네트워크 효과란 제품과 서비스의 특정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네트워크 효과가 크면 클수록 제품·서비스의 가치는 사용자의 수에 비례한다(Shapiro & Varian, 2013).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사업은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의 절약 또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가치가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이용자의 수에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 효과를 증폭시킴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박수황·김태중·남윤성, 2016). 또한, 파이프라인 기업은 성과차이의 발생 원인이 기업의 밖이 아닌 안에 있다고 보는 자원기반의 관점(Mahoney &

Pandian, 1992)을 그대로 수용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소요되는 기업의 내부 자원들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기업 내부의 가치사슬을 최적화하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플랫폼기업은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협업을 중요시한다. 또한, 파이프라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선형적인 가치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플랫폼 사업은 순환적인 가치 흐름을 갖고 있으며(Moazed & Johnson, 2016), 플랫폼 참여자는 공급(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Two-Sided Market)를 가지고 있다(Rochet & Tirole, 2003). 두 기업은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파이프라인 기업의 기업문화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조직 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수직적이며, 계층적이다. 또한, 개인의 업무와 역할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그에 맞는 직위가 부여되어 있으며, 조직의 안정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서는 외부 고객의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고, 다변화된 시장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조직의 유연성이 강조된다. 또한, 조직구성원에게 최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직 구조도 수평적으로 전환해야 하며, 상하간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닌, 파트너로서 독립적이고 유연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관계로의 변화가 요구된다(정재호, 2010).

선행연구를 토대로, 플랫폼기업은 조직의 유연성이 더욱 중요하기에 일반기업보다 조직 회복탄력성이 더 클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 대상을 중소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나눠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랫폼기업의 분류는 ‘OECD 온라인플랫폼 분류 및 대표 사업자 유형’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이금노·서종희·정영훈, 2016). 중소기업은 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따라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2.5. 기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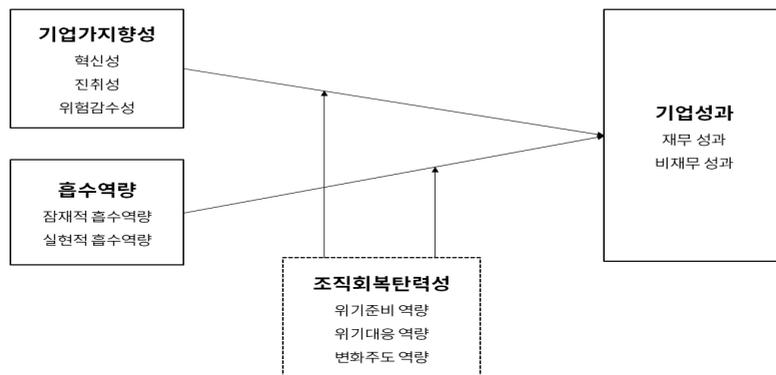
기업성과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보이며, 비재무적인 주관적 성과와 재무적인 객관적 성과로 분류된다. 특히, 기업성과의 주관적 측정은 비재무적 성과 평가에 유용하고, 객관적 지표보다 접근하기 쉬우며,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Dess & Robinson, 1984). 또한, 대부분 기업에서 인지하는 주관적 성과는 객관적 성과와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연구자들이 주관적 방법으로 기업성과를 측정하였다(Narver & Slater 1990). 기업성과의 객관적 측정은 동일방법 편이의 발생 가능성이 작은 점, 재무적 성과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Stam & Elfring, 2008). 또한, 전통적 재무정보의 경우, 과거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고, 단기적인 시각을 우선시하는 지향성이 존재한다(Neely, 1999).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성과지표를 사용해 기업성과를 측정하였으며, Stam & Elfring(2008)이 개발한 설문항목을 활용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 수익률, 시장점유율, 고용성장률에 대해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Ⅲ.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각각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변수로는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기업성과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영향 관계에 개입하는 조절변수로 조직회복탄력성을 설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 가설 1. 기업가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흡수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조직회복탄력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조직회복탄력성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 5. 조직회복탄력성은 흡수역량과 기업성과간의 영향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 가설 6.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정의한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기업가지향성은 Miller(1983)가 제시한 3가지 구성요인인 혁신성(innovativeness), 위험감수성(risk-taking), 진취성(proactiveness)을 활용하였다. Covin & Slevin(1989)은 이를 발전시켜 3가지 구성요인에 대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Covin & Slevin(1989), 장현영·김병근 (2017)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참고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혁신성 3문항, 위험감수성 3문항, 진취성 3문항으로 총 9문항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흡수역량은 Zahra & George(2002)가 제시한 2가지 구성요인인 잠재적 흡수역량(potential absorptive capacity)과 실현적 흡수역량(realized absorptive capacity)을 활용하였으며, 잠재적 흡수역량 3문항, 실현된 흡수역량 3문항의 총 6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직회복탄력성은 여러 연구자가 개발한 측정 도구를 참고하여 이정아(2018)가 재정의한 3가지 구성요인인 위기준비 역량, 위기대응 역량, 변화주도 역량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아(2018)가 개발한 측정척도를 사용하되, 연구의 목적에 맞게 하위요인인 위기준비 역량은 6항목(상황 인식 3항목, 운영의 지속성 계획 3항목), 위기대응 역량은 9항목(빠른 의사결정 3항목, 효과적인 파트너십 3항목, 자원의 가용성 3항목), 변화주도 역량은 6항목(조직유연성 3항목, 위기극복 자신감 3항목)으로, 총 21항목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기업성과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무성과와 비재무 성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성과지표를 사용해 기업성과를 측정하였으며, Stam & Elfring(2008)이 개발한 4개의 설문항목을 활용하였다. 설문항목은 리커트 7점 척도를 기반으로, 기업성과를 경쟁사 대비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 고용성장, 시장점유율, 수익률에 대해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양적연구방법론인 설문조사법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이 완료된 문항을 참고하여 간편성(parsimony) 원칙에 따라 문항 수를 조정하였고, 설문문항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설문대상은 중소기업 중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이며, 온라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고, 333부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에 적합한 315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최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통계 분석과 변수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Pearson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조절변수가 조절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5를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V. 연구결과

5.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43명(77.1%), 여자 72명(22.9%)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32명(10.2%), 30대 152명(48.3%), 40대 107명(34.0%), 50대 24명(7.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11명(3.5%), 전문대졸 28명(8.9%), 대졸 218명(69.2%), 대학원졸 58명(18.4%)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사원 30명(9.5%), 주임/대리 77명(24.4%), 과장/차장 112명(35.6%), 부장 63명(20.0%), 임원 33명(10.5%)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5년 이하 141명(44.8%), 6-10년 80명(25.4%), 11-15년 44명(14.0%), 16-20년 31명(9.8%), 20년 이상이 19명(6.0%)으로 나타났다. 부서는 연구/개발 114명(36.2%), 생산 8명(2.5%), 마케팅/영업 88명(27.9%), 기획/재무 52명(16.5%), 인사/총무 11명(3.5%), 기타 42명(13.3%)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플랫폼기업 137명(43.5%), 일반기업 178명(56.5%)으로 나타났고, 상세업종은 서비스업 27명(8.6%), 금융업 6명(1.9%), 제조업 29명(9.2%), 건설업 6명(1.9%), 교육/컨설팅 10명(3.2%), 의료/제약 13명(4.1%), 판매/유통 11명(3.5%), IT/웹/통신 206명(65.4%), 미디어/디자인 7명(2.2%)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243	77.1
	여자	72	22.9
연령	20대	32	10.2
	30대	152	48.3
	40대	107	34.0
	50대	24	7.6
학력	고졸	11	3.5
	전문대졸	28	8.9
	대졸	218	69.2
	대학원졸	58	18.4
직급	사원	30	9.5
	주임/대리	77	24.4
	과장/차장	112	35.6
	부장	63	20.0
근무연수	임원	33	10.5
	5년 이하	141	44.8
	6-10년	80	25.4
	11-15년	44	14.0
	16-20년	31	9.8
부서	20년 이상	19	6.0
	연구 개발	114	36.2
	생산	8	2.5
	마케팅/영업	88	27.9
	기획/재무	52	16.5
	인사/총무	11	3.5
업종	기타	42	13.3
	플랫폼기업	137	43.5
상세 업종	일반기업	178	56.5
	서비스업	27	8.6
	금융업	6	1.9
	제조업	29	9.2
	건설업	6	1.9
	교육/컨설팅	10	3.2
	의료/제약	13	4.1
	판매/유통	11	3.5
	IT/웹/통신	206	65.4
	미디어/디자인	7	2.2
전체		315	100.0

5.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독립변수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와 TLI는 0.9 이상, RMSEA는 .08 미만으로 나타났고, 기업가지향성의 9개 항목, 흡수역량의 6개 항목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은 해당 변수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가지향성의 Cronbach's α =.892, 흡수역량의 Cronbach's α =.949로 나타나, 독립변수 측정도구의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속변수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와 TLI는 0.9 이상, RMSEA는 .08 미만으로 나타났고, 기업성과 4개 항목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은 기업성과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 성과의 Cronbach's α =.868로 나타나, 종속변수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절변수 측정항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와 TLI는 0.9 이상, RMSEA는 .08 미만으로 나타났고, 위기준비 역량의 6개 항목, 위기대응 역량의 9개 항목, 변화주도 역량의 6개 항목의 요인 적재값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은 해당 변수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위기준비 역량의 Cronbach's α =.887, 위기대응 역량의 Cronbach's α =.939, 변화주도 역량의 Cronbach's α =.923으로 나타나, 조절변수의 신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수준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보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모든 변수의 왜도 및 첨도가 기준치 미만이기에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기업가지향성	3.99	1.22	-0.27	-0.40
	흡수역량	4.23	1.44	-0.30	-0.40
조절변수	위기준비 역량	3.64	1.33	0.04	-0.50
	위기대응 역량	4.19	1.38	-0.39	-0.21
	변화주도 역량	4.33	1.41	-0.20	-0.39
종속변수	기업성과	4.51	1.41	-0.58	-0.03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의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위기준비 역량, 위기대응 역량, 변화주도 역량, 그리고 기업성과 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성과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위기준비 역량, 위기대응 역량, 변화주도 역량 모두 플랫폼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3〉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의 주요 변수 평균 비교

변수	플랫폼기업		일반기업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업가지향성	4.39	1.11	3.69	1.22	5.235***	.000
흡수역량	4.57	1.35	3.96	1.45	3.816***	.000
위기준비 역량	3.86	1.33	3.48	1.32	2.521*	.012
위기대응 역량	4.41	1.27	4.03	1.44	2.436*	.015
변화주도 역량	4.59	1.38	4.13	1.41	2.878**	.004
기업성과	4.66	1.45	4.41	1.38	1.547	.123

5.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조직회복탄력성(위기준비 역량, 위기대응 역량, 변화주도 역량)과 기업성과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 수	1	2	3	4	5	6
1. 기업가지향성	1					
2. 흡수역량	.764***	1				
3. 위기준비 역량	.619***	.740***	1			
4. 위기대응 역량	.590***	.729***	.815***	1		
5. 변화주도 역량	.635***	.778***	.784***	.856***	1	
6. 기업성과	.497***	.486***	.510***	.461***	.457***	1

5.5. 가설 검증 및 요약

5.5.1.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지향성($\beta=.253, p<.01$), 흡수역량($\beta=.169, p<.05$)은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높을수록 기업성과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5.2.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위기준비 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329, p<.001$). 또한, 기업가지향성과 위기준비 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이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36, p<.01$). 즉,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위기준비 역량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위기준비 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333, p<.001$). 또한, 흡수역량과 위기준비 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이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03, p<.05$). 즉,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위기준비 역량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업

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위기대응 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257, p<.001$). 또한, 기업가지향성과 위기대응 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이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20, p<.05$). 즉,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위기대응 역량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위기대응 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227, p<.01$). 또한, 흡수역량과 위기대응 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위기대응 역량은 조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것처럼, 흡수역량은 개방적인 태도로 외부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된 지식과 정보를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대응 역량을 어느 정도 포함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변화주도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변화주도 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237, p<.001$). 또한, 기업가지향성과 변화주도 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이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43, p<.01$). 즉, 기업가지향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변화주도 역량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변화주도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변화주도 역량이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eta=.201, p<.05$). 또한, 흡수역량과 변화주도 역량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이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04, p<.05$). 즉,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변화주도 역량은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5.3.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의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비교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의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비교한 결과,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의 조절효과,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의 조절효과는 플랫폼기업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반

기업과 달리, 플랫폼기업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이 유의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 = -.166, p < .05$).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선행 연구(정재호, 2010)에서 정리한 것처럼, 일반기업에 비해 플랫폼기업에서는 급변하는 고객 니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다변화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상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기준비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일반기업과 달리, 플랫폼기업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이 유의한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eta = -.189, p < .05$).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선행 연구(정재호, 2010)에서 정리한 것처럼, 일반기업에 비해 플랫폼기업에서는 급변하는 고객 니즈 및 시장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위기대응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5.5.4. 가설 검증 결과 요약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가설 검증 요약 결과

구분	가 설	결과
1	기업가지향성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흡수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1	위기준비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위기대응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3	변화주도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1	위기준비 역량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4-2	위기대응 역량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4-3	변화주도 역량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5-1	위기준비 역량은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5-2	위기대응 역량은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기각
5-3	변화주도 역량은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채택
6-1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의 조절효과가 더 클 것이다.	채택
6-2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의 조절효과가 더 클 것이다.	기각
6-3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의 조절효과가 더 클 것이다.	채택
6-4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의 조절효과가 더 클 것이다.	기각
6-5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변화주도 역량의 조절효과가 더 클 것이다.	기각
6-6	플랫폼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변화주도 역량의 조절효과가 더 클 것이다.	기각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쟁우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량으로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조직회복탄력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또한,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하여 기업성과에 미치는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조직회복탄력성은 모두 기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소인 위기준비 역량, 위기대응 역량, 변화주도 역량은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고, 위기준비 역량과 변화주도 역량은 흡수역량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셋째,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준비 역량의 조절효과, 기업가지향성과 기업성과 간 관계에서 위기대응 역량의 조절효과는 플랫폼기업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역량을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 아니라 조직회복탄력성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과 상호작용하여 성과를 높여줄 수 있음을 실증하였으며,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조절효과를 연구해 이론적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시장 환경 변화가 크고 재난 상황인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은 평상시 상호보완적인 역량을 함께 보유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조직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조직회복탄력성이 플랫폼기업에 있어 내·외부 환경 조절 변수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어떤 하위요소에 따라 조절효과가 달라지는지를 실증하였다. 플랫폼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한 결과, 조직회복탄력성이 다르고, 플랫폼기업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회복탄력성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성과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의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회복탄력성을 통해 더욱 강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평상시 위기준비 역량, 위기대응 역량, 변화주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기업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들은 독립변수와 상호작용을 하여 기업성과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산업전반에 대한 조직차원의 상황인식, 위기를 대비하는 운영의 지속성 계획, 구성원들에게 위기 상황을 인지시키고 조직수준의 의사결정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고 존중하는 조직회복탄력성에 대한 지각과 실천이 기업성과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로 성장 위주의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위기준비 및 위기대응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속 성장하던 넷플릭스는 최근 실적이 하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준비 및 위기대응 역량, 즉 조직회복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기업은 조직회복탄력성이 있어야 지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장 환경 변화가 크고 예측 불가능한 기업경영 환경하에서 중소기업들이 기업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업경영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분야의 코치 및 컨설턴트가 현장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환경 하에서도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차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을 제시하였으나 조직회복탄력성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심도 있게 탐색하여 다양한 독립변수를 추가로 개발한다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상호보완적 역량을 확장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조사 대상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대상 및 범위를 확장하여 중소기업 경영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양적 연구방법 외에 질적 연구방법 또는 다중 방법론 연구를 통해 분석을 보다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독립변수 집단의 차이에 따른 비교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을 기업가지향성, 흡수역량이 큰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나눠서 진행 후, 두 집단 간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플랫폼기업 유형을 구분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플랫폼 오너(Owner), 플랫폼 참여자(3rd Party), 오너이면서 동시에 참여자인 기업으로

나뉘서 조직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주요한 실증결과들을 보완하고 기업성과의 결정 요인과 조절효과를 다양한 차원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유의미한 시사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석민(2021), “대구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개별협력 활동의 영향 분석: 기술역량의 조절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pp.404-413.
- 권재득(2018), “기업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근·옥주영(2017), “한국 중소기업의 협력역량, 흡수역량과 협력성과”, 「연세경영연구」, 제54권, 제3호, pp.51-76.
- 박수황·김태중·남윤성(2016), “네트워크효과를 위한 현지화 전략의 실패: 카카오톡의 일본시장 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20권, 제2호, pp.151-180.
- 우형록·권정언(2013), “기업가지향성과 흡수역량이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제21권, 제2호, pp.57-84.
- 이금노·서종희·정영훈(2016),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pp.95-96.
- 이경미·이장우(2017), “벤처기업의 지식 흡수능력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6권, 제5호, pp.1503-1519.
- 이정민·김병근(2018),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경영연구」, 제55권, 제3호, pp.103-131.
- 이정아(2018), “지각된 조직회복탄력성이 혁신행동 및 조직자발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심리계약의 매개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재호(2010), “사업부 제조직을 채택한 다국적기업의 분권화에 관한 이론과 사례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7권, 제1호, pp.23-39.
- 조세근·손종서·이우진(2015), “창업지향성과 학습지향성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6호, pp.1-13.
- 최석봉·이도형(2013), “기업가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의 하위변수가 혁신성과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벤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경영연구」, 제16권, 제3호, pp.109-129.

(2) 국외문헌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 Aldrich, H., & Auster, E. R.(1986), “Even dwarfs started small: Liabilities of age and size and their strategic implic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8, pp.165 - 198.
- Aleksić, A., Stefanović, M., Arsovski, S., & Tadić, D.(2013), “An assessment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potential in SMEs of the process industry, a fuzzy approach”, *Journal of Loss*

Prevention in the Process Industries, Vol.26, pp.1238 - 1245.

- Baker, W. E., & Sinkula, J. M.(2009), “The Complementary Effects of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Profitability in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7, No.4, pp.443-464.
- Barney, J.(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1, pp.99-120.
- Bhamra, R., Dani, S., & Burnard, K.(2011), “Resilience: the concept, a literature review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Vol.49, No.18, pp.5375-5393.
- Burnard, K. & Bhamra, R.(2011), “Organizational resilience: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ganizational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Vol.49, No.18, pp.5581-5599.
- Chen, H. L., & Hsu, C.-H.(2013),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non-profit service organizations: contingent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Vol.33, No.5, pp.445-466.
- Chen, S.(2016), “Construction of an early risk warning model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An empirical study based on samples of R&D teams”, *Discrete Dynamics in nature and Society*, pp.1-9.
- Cohen, W. M., & Levinthal, D. A.(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5, No.1, pp.128-152.
- Corey, C. M., & Deitch, E. A.(2011), “Factors affecting business recovery immediately after Hurricane Katrina”,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 Vol.19, No.3, pp.169-181.
- Covin, J. G., & Covin, T. J.(1990), “Competitive aggressiveness, environmental context, and small firm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4, No.4, pp.35-50.
- Covin, J. G. & Lumpkin, G. T.(2011),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ory and Research: Reflections on a Needed Construct”,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5, No.5, pp.855-872.
- Covin, J. G., & Slevin, D. P.(1989), “Strategic management of small firms in hostile and benign environment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0, No.1, pp.75-87.
- Curran, Patrick J., West, Stephen G., Finch, & John F.(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Vol.1, No.1, pp.16-29.
- De Clercq, D., Dimov, D., & Thongpapanl, N. T.(2010), “The moderating impact of internal social exchange processes on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5, No.1, pp.87-103.
- Denhardt, J., & Denhardt, R.(2010), “Handbook of adult resilience”, *Guilford*.
- Dess, G. G., & Robinson, R. B.(1984), “Measur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the absence of objective measures: The case of the privately-held firm and conglomerate business uni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5, No.3, pp.265-273.

- Dess, G. G., Lumpkin, G. T., & Covin, J. G.(1997), “Entrepreneurial strategy making and firm performance: Tests of contingency and configurational model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8, No.9, pp.677-695.
- Engelen, A., Kube, H., Schmidt, S., & Flatten, T. C.(2014),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turbulent environments: The moderating role of absorptive capacity”, *Research Policy*, Vol.43, No.8, pp.1353-1369.
- Flatten, T. C., Greve, G. I., & Brettel, M.(2011), “Absorptive capacity and firm performance in S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trategic alliances”, *European Management Review*, Vol.8, No.3, pp.137-152.
- Frank, H., Kessler, A., & Fink, M.(2010),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Schmalenbach Business Review*, Vol.62, No.2, pp.175-198.
- García-Villaverde, P. M., Ruiz-Ortega, M. J., & Canales, J. I.(2013),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threat of imitation: The influence of upstream and downstream capabilitie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31, No.3, pp.263-277.
- Gittell, J. H., Cameron, K., Lim, S., & Rivas, V.(2006), “Relationships, layoffs, and organizational resilience”,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42, No.3, pp.300-329.
- Green, K. M., Covin, J. G., & Slevin, D. P.(2008),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rategic reactivit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he role of structure - style fi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3, No.3, pp.356-383.
- Hagiu, A., & Wright, J.(2015), “Multi-sided platform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43, pp.162-174.
- Hamel, G., & Valikangas, L.(2003), “The quest for resilience”, *Harvard Business Review*, Vol.81, pp.52-63.
- Holling, C. S.(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s”,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Vol.4, pp.1-23.
- Horne, J., & Orr, J.(1998), “Assessing behaviors that create resilient organizations”, *Employment Relations Today*, pp.29-39.
- Ireland, R. D., Hitt, M. A., & Sirmon, D. G.(2003), “A model of strategic entrepreneurship: The construct and its dimensions”, *Journal of management*, Vol.29, No.6, pp.963-989.
- Ismail, H.S., Poolton, J., & Sharifi, H.(2011), “The role of agile strategic capabilities in achieving resilience in manufacturing-based small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Vol.49, pp.5469-5487.
- Kantru, D., & Iseri-Say, A.(2012), “Organizational resilience: A conceptual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Vol.18, No.6, pp.762-773.
- Keh, H. T., Nguyen, T. T. M., & Ng, H. P.(2007),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marketing information on the performance of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2, No.4, pp.592-611.

- Kraus, S., Rigtering, J. C., Hughes, M., & Hosman, V.(2012),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Es: A quantitative study from the Netherlands",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Vol.6, No.2, pp.161-182.
- Lane, P. J., & Lubatkin, M.(1998), "Relative absorptive capacity and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9, No.5, pp.461-477.
- Lane, P. J., Koka, B. R., & Pathak, S.(2006), "The reification of absorptive capacity: A critical review and rejuvenation of the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1, No.4, pp.833-863.
- Lengnick-Hall, C. A., & Beck, T. E.(2003), "Beyond bouncing back: The concept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Seattle, WA, pp.1-6.
- Lengnick-Hall, C. A., & Beck, T. E.(2011), "Developing a capacity for organizational resilience through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21, pp.243-255.
- Lichtenthaler, U.(2009), "Absorptive capacity, environmental turbulence, and the complementarity of organizational learning process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2, No.4, pp.822-846.
- Lumpkin, G. T., & Dess, G. G.(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1, pp.135-172.
- Lumpkin, G. T., & Dess, G. G.(2001), "Linking two dimension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to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 and industry life cycl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6, No.5, pp.429-451.
- Maelah, R., Al Lami, M. F. F., & Ghas, G.(2021), "Usefulness of management accounting information in decision making among SMEs: the moderating role of cloud computing", *Asia-Pasific Management Accounting Journal*, Vol.16, No.1, pp.59-92.
- Mahoney J. T., & Pandian, J. R.(1992), "The resource based view within the conversation of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3, No.5, pp.363-380.
- Maldonado, T., Salaiz, A., Vera, D., & Keller, R. T.(2019), "Taking Stock of the Absorptive Capacity Construct and its Dimensions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 Meta-Analytic Approach",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66, No.2, pp.193-207.
- Mallak, L. A.(1998a), "Measuring resilience in health care provider organizations", *Health Manpower Management*, Vol.24, No.4, pp.148-152.
- Martin, R., Saumeet, N., & Kevin, W., & Edzard, W.(2020), "Becoming an All-Weather Company", *BCG Henderson Institute*.
- Matsuno, K., Mentzer, J. T., & Özsomer, A.(2002),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proclivity and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erformance", *Journal of Marketing*, Vol.66, No.3, pp.18-32.
- Moazed, A. & Johnson, N. L.(2016), "Modern Monopolies", *Applico*.
- Narver, J. C., & Slater, S. F.(1990), "The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on Business Profitability", *Journal of Marketing*, Vol.54, No.4, pp.20-35.

- Neely, A.(1999), “The performance measurement revolution: why now and what next?”,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19, No.2, pp.205-228.
- Pal, R., Torstensson, H., & Mattila, H.(2014), “Antecedents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in economic crises—an empirical study of Swedish textile and clothing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Vol.147, pp.410 - 428.
- Richard, O. C., Wu, P., & Chadwick, K.(2009),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CEO position tenure and industry tenur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20, No.5, pp.1078-1095.
- Rochet, J. C., & Tirole, J.(2003), “Platform competition in two sided market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1, No.4, pp.990-1029.
- Rysman, M.(2009), “The economics of two-sided marke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23, No.3, pp.125-143.
- Sciascia, S., D’Oria, L., Bruni, M., & Larrañeta, B.(2014),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low-and medium-tech industries: The need for Absorptive Capacity to increase performance”,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32, No.5, pp.761-769.
- Senivongse, C., Mariano. S., Bennet. A., & Tsui. E.(2020), “Absorptive capacity efficacy in SMEs: evidence from multiple case studies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Vol.20, pp.1-14.
- Shapiro, C., & Varian, H. R.(2013),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Press*.
- Spithoven, A., Vanhaverbeke, W, & Roijakkers, N.(2013), “Open innovation practices in SMEs and large enterprise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41, No.3, pp.537-562.
- Stam, W., & Elfring, T.(2008),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new venture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intra-and extra-industry social capit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51, pp.97-111.
- Su, Z., Xie, E., & Li, Y.(2011),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Firm Performance in New Ventures and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9, No.4, pp.558-577.
- Su, Z., Xie, E., & Wang, D.(201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Managerial Networking, and New Venture Performance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53, No.1, pp.228-248.
- Sutcliffe, K. M., & Vogus, T.(2003), “Organizing for resilience In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s of a new discipline”, *Berrett-Koehler*, Chapter 7, pp.94-110.
- Tang, J. T., Z.; Marino, L. D.; Zhang, Y.; Li, Q.(2008), “Exploring an Inverted U-Shap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Performance in Chinese Ventur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2, No.1, pp.219-239.
- Tang, Z., & Tang, J.(2012),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E performance in China’s changing environ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strategies”, *Asia Pacific Journal of Management*,

- Vol.29, No.2, pp.409-431.
- Teece, D. J.(2007), "Explicating dynamic capabilities: the nature and microfoundations of (sustainable) enterprise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8, No.13, pp.1319-1350.
- Teece, D. J., Pisano, G., & Shuen, A.(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18, No.7, pp.509-533.
- Tsai, W.(2001), "Knowledge transfer in intraorganizational networks: Effects of network position and absorptive capacity on business unit innovation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4, No.5, pp.996-1004.
- Wales, W. J., V. K. Gupta, & F. T. Mousa(2011), "Empirical research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 assessment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31, No.4, pp.357-383.
- Wales, W. J., Parida, V., & Patel, P. C.(2013b), "Too much of a good thing? Absorptive capacity, firm performance, and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34, No.5, pp.622-633.
- Werner, E. E., & Smith, R. S.(1977), "Kauai's children come of age",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iklund, J.(1999), "The Sustainability of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performance relationship". *Entrepreneurship Theory Practices*, Vol.24, No.1, pp.37-48.
- Wiklund, J., & Shepherd, D.(2003), "Knowledge based resource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4, No.13, pp.1307-1314.
- Wiklund, J., & Shepherd, D.(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a configurational approac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0, No.1, pp.71-91.
- Zahra, S. A., & Covin, J. G.(1995), "Contextual Influences on the Corporate Entrepreneurship-performance Relationship: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0, No.1, pp.43-58.
- Zahra, S. A., & George, G.(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7, No.2, pp.185-203.
- Zahra, S. A., & Hayton, J. C.(2008), "The effect of international venturing on firm performance: The moderating influence of absorptive capacit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23, No.2, pp.195-220.

□ 투고일: 2023.01.09. / 수정일: 2023.03.30. / 게재확정일: 2023.04.17.